

대한전기학회 50주년 기념 행사

대한전기학회 50주년 기념 전시회 및 회원친목의 밤

백수현*

(*50주년 행사진행분과 위원장, 동국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머리말

1997년 7월 9일에 개최된 50주년행사의 진행 및 기획을 전기학회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후, 행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학회지에 게재할 12월 특집원고를 청탁받고 그동안 준비하고 행사를 치루었던 내용들을 여러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이러한 기념행사들을 준비했던 과정, 행사내용, 및 뒷 이야기들을 기록하느라 앞으로 치루어 질 각종 행사 준비와 앞으로 다가올 75주년 또는 100주년 기념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금년에 치루어진 50주년 기념행사에 얽혀진 여러가지 내용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1997년 7월 5일은 대한전기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다. 금년 초부터 대기업의 잇다른 부도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사를 어떻게 치르며 소요 경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회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지난 50년에 걸친 학회활동과 전기관련 산업계의 발전내용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줄 수 있는 행사를 검토하고 의미있게 저비용으로 어떻게 치루어야 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준비기간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남아 있지 않았지만 50년 동안의 학회의 발자취를 기록화 한 사진 등을 수집, 재정리하여 전시하는 50주년 기념 사진전, 학회에 보존된 문서와 간행물을 토대로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계로 정리하고 도표화함으로써 과거의 발자취를 돌이켜 현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학회활동에 대한 미래상을 생각하게하는 통계전시전을 갖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몇몇 사람의 노력과 희생은 선제가 되겠지만 비용이 적게들고 뜻깊은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기획, 자료수집 및 전시자료화에 착수했다.

또한 국내외 내빈들이 많이 참석하는 전기학회 창립50주년 기념식에서 제1부의 주요 프로그램인 “되돌아본 전기학회 50년의 발자취”를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원고를 별도로 준비하기로 했고 7월21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하계학

술대회에서 회원들만의 친목과 우의를 다짐하는 “회원 친목의 밤” 행사를 별도로 기획하여 평소 낮설고 어렵게 생각하는 선후배 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마음을 열고 즐길수

표 1. 전기학회 50주년 기념 사진전 목록

번호	계	목
1	동양 최대의 수풍 댐과 60만kW 발전소(1994)	
2	남한 유일의 대용량 화전인 영암발전소(10만kW,1991)	
3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의 합병조인식(1961)	
4	전력병합을 위한 발전반(1948)과 Diesel기관차(1967)	
5	345kV 시대의 개막과 초고압 송전설로(1976)	
6	765kV의 효시인 고창 실규모 시험설로(1992)	
7	경북공의 전기 시등도(1887)	
8	농어촌 전화사업(1965 ~)	
9	원자력 시대의 개막과 고리 1호기(1978)	
10	다목적 국산 원자로 연구설비	
11	핵연료 장진 장면	
12	초기의 154kV 변압기(1969)	
13	초기의 345kV 변압기(1981)	
14	6,000 HP 초대형 전동기 철심작업	
15	실외에 설치된 154kV GIS(1980 ~)	
16	362kV GCB	
17	유연탄 발전소인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18	춘천 수력발전소 와 기공식 장면(1961)	
19	지중 송전선로의 전력 Cable(1971 ~)	
20	MOLD 변압기	
21	ACSR 전선류	
22	OF Cable	
23	XLPE Cable	
24	Optical Fiber Cable	

25	세계 최초의 전자제품들
26	자산업 시대를 연 초기제품들
27	220V 승압(1973 ~) 및 22.9kV 승압사업(1975 ~)
28	256 M DRAM(1994) 과 1 G DRAM(1996)
29	국내 최초의 "우리별 1호" 인공위성체
30	수평 다관절 Robot
31	자동 참고 System
32	고주파 Switching Rectifier
33	국내 최초로 개발된 Silicon 단결정 Ingot(1982)
34	중앙, 태백선을 달리는 산업 전기철도(1978)
35	500 MHz대의 초고속 CPU-Alpha Chip(1996)
36	인공위성 통신지구국
37	광통신을 이용한 전자통신 설비(1983 ~)
38	수도권 전철 개통(1974)
39	자기 부상열차의 시제품(1993)
40	전기 조명에 의한 야경
41	765kV 전력용변압기의 국산화 개발(1996)
42	Seoul 국제전기전자 학술회의 개최(1970.9 KIST 존슨강당)
43	광복 당시 전국 발전설비(1945)
44	가전분야의 초기제품들
45	DVD (Digital video Disk)
46	전기학회의 국제교류 사진

있도록 했다. 각종 행사 별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1. 전기학회 50주년 기념 사진전

우리의 전기관련사업들은 전력, 전기기기, 제어시스템, 재료, 고전압 방전, 반도체 및 컴퓨터 분야등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다. 각 분야 별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수집했는데 당초 생각보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오래된 자료는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본 학회 행사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었고 나름대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된 "한국전기 100년사 화보"의 내용을 근간으로 각 기관, 업체에서 수집된 자료를 모아 각 분야 별, 광복이후의 각 년대를 고려한 변천사를 중심으로 50여종의 사진을 선정하여 제작, 전시하게 되었다.

표 1은 전시된 사진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말기 고종황제시절, 188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경북궁의 전기始燈圖(고종에 의해 전기 100주년 사업으로 제작된 그림)를 비롯해서 해방이전 남한 유일의 대용량 화력발전소(寧越火電, 10만KVA), 동양 최대의 水豊 댐과 수력발전소(60만 KVA)를 비롯해서 광복당시의 전국의 발전설비, 1960년대 초반부터 개발, 보급되었던 家電分野의 初期製品, 한국전력의 전신인 京城電氣와 南鮮電氣의 朝鮮電業으로의 합병조인식(1961년), 또 이 시기에 기공한 춘천수력발전소 기공식 장면, 1965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電化事業, 세계 최초의 전자제품 및 전자사업 시대를 연 초기제품 및 초기의 154KV 변압기등의 사진이 전시 되었다.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인 KIST설립을 기념하여 1970년 9월 KIST 존슨강당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전기전자 학술회의 장면이 있고 220V 승압(1973년~)과 22.9KV 승압사업(1975년~), 1976년 345KV 시대의 개막과 超高壓 送電線路, 원자력시대를 연 古里 원자력발전소 1호기(1978년), 수도권 전철개통(1974년), 몰드변압기, ACSR 전선류 및 OF 케이블등이 있다.

1981년에는 345KV 변압기가 국산화 되었고 옥외에 154KV GIS 설치되었고 XLPE Cable, Optical Fiber Cable 등의 개발, 광 통신을 이용한 전자통신설비(1983년), 인공위성 통신지구국 개통,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실리콘 단결정 Ingot등이 전시되었다.

1990년대의 사진자료들은 고창에 설치된 765KV 실규모 시험선로(1992년), 765V 전력용변압기 개발(1996년), 258M DRAM(1994년), 1G DRAM(19996년), 500MHz대의 초고속 CPU-Alpha Chip개발, 수평 다관절 로봇트, 자동 참고시스템, 정보화기기, DVD등이 있다

사진 1은 50주년기념 사진전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사진1. 50주년 기념사진전(하계학술대회 기간중)

2. 통계와 그림으로 돌아 본 전기학회 50년

대한전기학회가 1947년 7월 5일 발족이 되어 금년이 쉰 돌이 된다. 우리 학회의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기록과 활동

상황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자료를 들추어 보고 이웃나라 일본학회의 100주년 기념행사, 중국학회의 60주년 기념행사 등을 볼 때 배울 점도 있고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도 있음을 숨길 수가 없다. 단편적으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기록 또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의식이 매우 소홀한 것 같다.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국내의 어떠한 학회들은 1945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아마 해방과 동시에 학회를 창립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전기학회는 정확한 正史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원로회원들도 계시고 史料도 있기 때문에 기념일과 나이는 정확하다.

이미 50주년 행사를 작년, 또는 제작년에 마친 학회들의 일부는 正史를 근거로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먼 후세를 위해서도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는 사명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 조금 얘기가 벗어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학회활동, 사업 및 행사들의 기록을 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앞으로의 책임을 맡은 분들은 반드시 후임자들을 위해서라도 꼼꼼한 기록정리와 보존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경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50주년 행사를 치르더라도 과거를 돌이켜 보는 전시회와 같은 프로그램은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필자가 내놓는 바람에 業報로 이 어려운 짐을 아니 맡을 수가 없었다. 결국 自業自得이 된 셈이었다. 학회에 비치된 각종자료를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무엇이 어디에 수록되었는지 찾기조차 어려워 처음에는 망막하기조차했다. 학회에서 30여년 일을 해온 진동신사무국장께서도 좋은 일, 해야 할 일이라 하면서도 막상 엄두가 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학회 사무국 별도의 도서실, 자료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학회 사무실도 여러번 이사를 했으며 지금과 같은 넓은 공간도 과거에는 없었으니 아쉬움도 여러 가지였다.

더욱이 D-데이를 3개월여를 앞두고 자료를 찾고 통계를 내야 하니 보통 바쁜 일이 아니었다. 우선 50년이 되는 금년 통계가 나올 수 없는 자료는 작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회원 수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자료는 1997년 5월말을 기준으로 통계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기로 했다.

50년 동안에 전기학회의 변화된 모습을 찾기 위해 크게 몇가지 주제를 정하여 통계를 얻고자 했다.

첫째, 회원과 관련 된 사항이다. 회원 수는 지금이 몇 명이고 10년전에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수도권에는 회원이 과연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어떻게 다른지 등 시도해 보고 싶은 자료는 한이 없었기에 시간과 노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체 추출자료중 관심을 가질만한 50개 정도의 통계와 그림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둘째, 출판물 현황이다. 학회지, 논문지, 영문논문지등 발간사업에 관련된 내용의 통계다.

셋째, 재무상황이다. 회원의 회비는 어떠한고 년간 총수입,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어 오고 있나, 수입에서 비중이 큰 항목은 무엇들이 있는지 또 지출에서 제일 큰 항목은 무엇

인지, 최근에 와서 어느 항목의 지출이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논문 건수는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가, 발표되는 논문은 어느 분야의 논문이 많은지 또는 논문의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분야는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뿐아니라 연구회별 연구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연구열의 경쟁과 학회운영에 좋은 기초자료도 될 것이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50주년인만큼 대표성이 큰 통계를 50개로 추출했다.

표 2는 통계로 나타낸 자료의 목록을 수록한 것이고 사진 2는 통계와 그림으로 전기학회 50년의 변화를 전시한 장면이다. 앞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각종 통계를 음미하여 본다면 좀 더 흥미있는 전시회 관람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통계와 그림자료의 목록

1. 회 원 수	
1	연도별 정회원수 현황
2	연도별 준회원수 현황
3	연도별 학생회원수 현황
4	연도별 회원수 현황
5	연도별 일반회원수 현황
6	연도별 회원수 합계
7	1948 ~ 1996년도별 회원수
8	1996년 현재 회원 분포도
9	연도별 입회 회원수
10	지역별 회원수
11	연구회별 회원수
12	학위별 회원수
2. 출 판 물 현 황	
1	학회지 발행현황
2	논문지 발행현황
3	영문논문지 발행현황
4	*영문논문지 게재편수 현황
3. 재 무 변 천	
1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2	연도별 예산액 현황
3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1949 ~ 1996)
4	학회 예산개황
5	1946년도 결산보고(수입)
6	1996년도 결산보고(수입)
7	연도별 예산집행액
4. 학 술 대 회 논 문 발 표 현 황	
1	분과별 추계, 하계 논문 발표수
2	연도별 하계 학술대회 참가인원수 현황
3	연도별 학술대회 논문발표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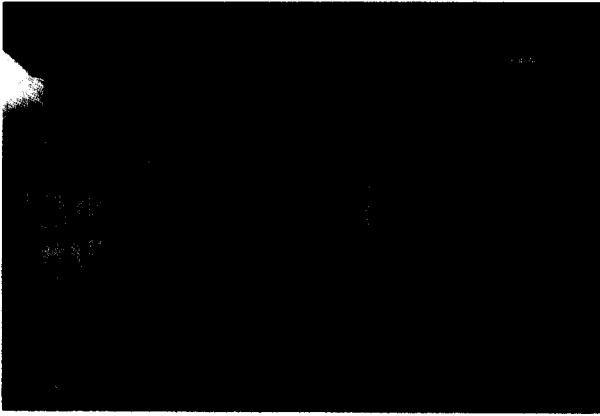


사진 2. 통계와 그림으로 본 50년 변천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2.1 회원 수의 변화

회원 수의 지난 50년간의 변화는 매우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창립당시 108명에서 1972년에 1,000명선을 돌파하여 1978년에 2,000명선을, 1981년에 3,000명선을 넘었다. 이는 불과 10년만에 회원의 수가 3배로 급증한 결과다.

그 이후 1989년까지 정회원의 수가 5,900명선까지 달했으나 양적 팽창에 따른 회원의 활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회비장기체납 회원들이 많아 사무행정 낭비를 없애기 위해 1990년도에는 3,600여명의 비활동회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활성화된 정회원을 2,300명선으로 줄였다. 전기학회에서는 50년동안 회원 수의 거품을 빼기 위해 1984년과 1990년 두 번에 걸쳐 회원 수를 정리한 바 있다.

90년대에 와서도 대학원 정원이 급격히 늘고 산업계의 연구, 개발인력의 확충으로 1996년말 현재 정회원 수가 5,000명선으로 늘었고, 준회원과 학생회원 수가 1,870명, 특별회원 수가 165명으로 총 회원 수의 합계가 7,000명을 넘어섰다.

정회원의 비중이 72%, 준회원 21%, 학생회원 5% 및 특별회원이 2%를 점하고 있다.

논문지 구독회원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및 수도권이 52.24%, 대전,충남 10.32%, 서부경남 7.62%, 부산 6.54%, 대구 5.2%순으로 나타났다.

회원의 취득학위별 분포는 박사 19%, 석사 30%, 학사 51%로 나타났으나 이는 회원의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한다면 상위 학위취득자가 더욱 늘어 날것이라는 생각이다.

2.2 재정 변천

학회의 연간 살림살이의 규모를 보면 이 또한 회원 숫자 못지 않게 많은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예산의 규모가 1962년에 30만원선에서 1979년에 5,000만원선을 넘어 1983년에 1억원, 1987년 2억원, 1990년 3억원, 1993년 4억원,

1995년에 5억원을 돌파하여 1996년 작년에는 수입기준으로 6억원선을 넘어 섰다. 이는 역대 회장님들의 노력과 특별회원 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크게 힘입은 결과라 생각된다.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학회의 주요 수입원은 발간수입 28%, 특별회비 23%, 학술대회 19%, 일반회원 17%로 회원의 자금을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종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특히 1995년에 학회 사무국을 새롭게 신축된 과학기술회관 신관으로 이전 하는데 소요된 2억4천만원을 성금하고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금년에는 50주년 기념행사를 별 대과없이 치를 수 있었음은 전기학회의 저력이 그만큼 크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학회로서 각 계에 신망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2.3 출판물 및 학술활동

학회지, 논문지

전기학회에서는 25년전에 전기학회 25년사를 발간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 전기학회 50년사(편찬위원장: 박상희 차기회장 당선자)를 발간했다.

전기학회지는 1968년부터 격월간, 1978년에 학회지와 논문지로 분리하여 월간으로 년 12회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편수의 연간합계의 변화는 1987년 75편, 1988년 100편, 1990년에 150편을 넘고 1993년에 195편, 1994년에 250편을 초과했고 1996년에는 280편으로 늘어나 불과 10년사이에 4배로 증가했으며 전기학회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날로 급신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지원에 의해 설립된 기초전력 공동연구소에서 지급하는 연구비 수혜의 덕도 한 몫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술대회

대한전기학회에서 개최되는 학술발표대회는 규모가 가장 큰 하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와 함께 치루는 추계학술대회가 있으며 각 연구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가 있다.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수는 70년대 초반에 20여편에 불과했던 것이 1992년에 400여편, 1996년에는 680여편으로 늘어 났고 참가인원수도 1977년 200명, 1993년에 1,000명선을 넘어 섰고, 1996년에는 1,300명선을 육박하는 대규모의 학술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양적인 팽창에 못지 않게 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지만 여하튼 실로 놀라운 결과임엔 틀림없다.

최근 10년동안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연구분야별로 집계해 보면 전기재료분야가 2,200여편, 제어계측분야 1,700여편, 전력전자분야 1,600여편, 전력계통분야 1,100여편, 전기기기분야 1,000여편, 방진 및 고전압분야 850여편이며 그 뒤로 로보틱스 및 자동화, 광전자 및 전자파, 컴퓨터 및 인공지능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들의 전공영역별 연구인력분포와 연구활동을 가늠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3. 기념식 프리젠테이션 원고준비

50주년 기념행사에는 외국에서 축하사절로 日本電氣學會 歷代會長 다수가, 中國에서는 中國電機工程學會(CSEE), 中國電工技術學會(CES)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 고위공무원,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전기공업진흥회 회장과 전기관련 단체장, 한국전자공학회 회장과 타 학회의 회장단이 많이 참석하는 관계로 전기학회의 50년 변화의 진면목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10년을 주기로 創立期(1940년대), 受難期(1950년대), 中興期(1960년대), 第1成長期(1970년대), 第2成長期(1989년대), 跳躍期(1990년대)로 나누어 각 년대 별로 학회사업의 주요특징을 설명토록 했고 학회지 및 논문지의 표지들을 디지털 영상화하고 뒤돌아 본 50년의 통계와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적절한 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로 연출, 빔-프로젝터로 발표(발표자: 이덕출 차기회장, 연출: 필자)하여 기념행사장에 참석한 국내외 내빈들의 관심을 집중토록 했으며 기념식후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다. 3개월 강행군 끝에 얻은 결과라 이 행사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쉴 수 있었다. 사진 3은 50주년 기념식에서 “통계와 그림으로 돌아 본 전기학회 50년”에 대한 주제로 차기회장이 발표하고 있는 사진이다.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이지만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여러 학회로 부터 우리의 노 하우를 배우고 자료를 받아 가려는 청탁이 학회 사무국에 많을 정도로 반응은 매우 좋았으며 역시 소문은 빠르다는 사실도 실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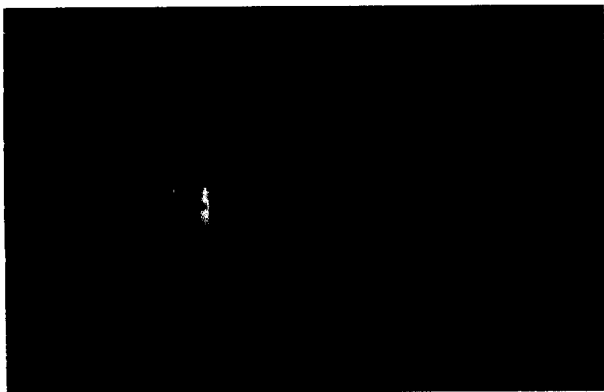


사진 3. 이덕출 차기회장의 학회 50년의 변천사 발표모습 (50주년 기념식장에서)

4. 50주년 기념 회원 친목의 밤

전기학회에서 회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의견 교환을 할 기회는 각 연구회에서 시행하는 발표행사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나마 세부전공이 다르거나 학연, 지연, 근무지 등이 서로 다른 경우는 좀처럼 기회가 없는 편이고 더욱이 연구소나 산업계에 종사하는 회원들은 학계에 있는 회원과 대화의 장을 잘 갖지 못하게 되어 논문 발표위주로 짜여진 학술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학회행사를 참석하다 보면 회원 상호간의 유대의 장을 갖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그동안 하계학술대회에서 전야제 행사로 리셉션을 동반 가족과 함께 치루어 왔으나 이러한 행사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많은 회원들의 호응도 커서 계속사업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학회 회원간에 친목을 증진케 하는데는 별다른 효험을 얻지 못했다는 의견을 지닌 회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학회 50주년 기념행사가 내외의 귀빈들을 모시고 대한전기학회의 활동내용과 업적을 대내외에 알리고 협조도 청하는 공식행사의 성격을 지닌 행사이므로 회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를 바라고 있는 회원들도 많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행사를 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참석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케 하고 예비등록을 받아 소요예산의 일부를 학회에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회원 친목의 밤” 행사를 가졌다.

행사의 취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인지, 당초 예상했던 인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약 150여명의 회원들이 뜻깊은 추억의 여름 밤을 야외에서 마음껏 즐길수 있었다. 특히 참석회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레를 춤추며 행사를 마감하는 장면은 압권이 아닐수 없었으며 지금도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며 미소도 절로 짓게 뒀을 숭길 수 없다.

필자의 서툰 사회로 시작된 입장식에는 참석회원 모두가 서로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원형으로 꼬리를 물어 입장토록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회원들이 초면인사가 되어서 그런지 명함까지 교환하는 회원이 있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지체되어 행사를 마치는 시간이 많이 늦어 졌다. 음식은 한식부페와 통돼지 바베큐를 안주로 하여 넉넉한 저녁을 마쳤다.

용평리조트 스키장 입구 잔디광장에 특별무대를 설치했고 전북지부장이신 이공희교수의 노력으로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부 수석인 김미정(85년 심청가 완창발표), 창극단원 양은희(무형문화재 2호 전수자)씨등 명창 2인을 특별히 모셔와 국악의 한 소절도 배우고 수준 높은 판소리와 동편제의 참 소리를 감상했다.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향기를 만끽했으리라는 점을 참석치 못한 많은 회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50주년 기념행사로 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매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참석회원들의 요청도 있었다. 필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매년 실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진 4는 용평리조트 잔디광장에서 열린 “회원 친목의 밤”의 행사의 한 장면이다.



사진 4. '회원친목의 밤'에서 변승봉 회장과 회원들이 악수를 하고있는 모습(하계학술대회기간)

맺는 말

금년은 대한전기학회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를 잘 치루었고 국내 최대규모의 학회로서 진면목을 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본다.

이러한 역사성있는 기념행사의 행사진행 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이 전기학회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을 정리하여 전시회를 갖게 됨을 여러 회원들과 함께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진전 자료준비와 전시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국전력 연구원의 김정부박사와 조성배과장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악의 향기를 만끽하게 해준 이공희교수(전북지부장)와 행사진행위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통계와 슬라이드 작성, 전시물 운반에서 관리까지 수개월에 걸쳐 맘을 홀려준 동국대학교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연구실의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뜻있는 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백수현(白壽鉉)

1947년 5월 2일생, 1972년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74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81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박). 1993년-96년 당학회 재무, 총무이사 역임. 1977년-현재 동국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당학회 평의원.